

厥證에 대한 考察

尙志大學校 韓醫學科 原典醫史學教室

方正均

關於薛己之生涯及醫學思想的研究

方正均

尙志大學校 韓醫學科 原典學教室

通過厥證的考察, 得到了如下的結論

其一是, 寒厥是因於陽氣不足而不能溫通血脈而發生的, 其氣血不能溫養四肢而發生的厥冷症, 這就是寒厥的主症狀.

其二是, 『素問·厥論』之陰虛內熱的熱厥是因於酒飽入房而發生的, 其特徵就是手足熱症.

其三是, 陽盛格陰的熱厥是因於陽氣鬱滯而發生的, 其特徵是有高熱兼手足厥冷症.

其四是, 四肢厥冷的原因有三. 其一是因於陽氣不足, 寒厥屬於此. 其二是因於陽氣鬱滯, 陽盛格陰的熱厥和暴厥屬於此. 其三是尸厥, 其病機是因感於不正之氣而氣閉塞也.

其五是, 昏倒發生的原因有二. 其一是因於氣閉塞, 尸厥薄厥和寒厥屬於此. 其二是因於火熱熾盛, 熱厥煎厥和暴厥屬於此.

關鍵詞: 寒厥, 熱厥, 四肢厥冷, 昏倒

I. 序論

『素問·厥論』篇에서는 厥證을 위주로 논술하면서 厥證을 寒厥과 熱厥로 구분하고 있는데, 寒厥은 “陽氣衰於下”하여 생기고, 熱厥은 “陰氣衰於下”하여 생기는 것으로 정의를 하여¹⁾, 陰陽이 偏衰한 것이 厥證의 原因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 交信著者: 方正均,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033) 730-0668, bjkdw@mail.sangji.ac.kr.

1)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169쪽

“黃帝問曰, 厥之寒熱者, 何也? 岐伯對曰, 陽氣衰於下, 則爲寒厥. 陰氣衰於下, 則爲熱厥.”

같은 厥證에 대한 본 篇의 정의는 후대에 厥證을 이해하고 치료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본 篇에서 언급한 熱厥의 경우 “手足熱”의 증상을 제기하여, 후대에 일반적으로 “四肢厥冷”의 증상을 厥證으로 이해하고 있는 인식과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內經』에서는 薄厥과 煎厥 등의 厥證을 제시하면서 厥證을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 결과 厥證의 구체적인 病機 및 厥證에 있어서 四肢厥冷과 人事不省의 有無와 관련된 相異한 주장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논자는 諸般 厥證과 관련된 醫家들의 주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厥證의 의미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II. 本論

『內經』에서는 『素問·厥論』篇에서 寒厥과 熱厥을 중심으로 厥證을 자세하게 언급한 이외에, 薄厥·煎厥·尸厥 등의 厥證을 제시하고 있다. 『內經』의 厥證에 대한 인식은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傷寒論』에서 『內經』의 이론을 근거로 하여 寒厥과 熱厥에 대한 治法과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內經』과 『傷寒論』의 厥證에 대한 인식이 전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 이에 論者は 본론에서는 『素問·厥論』의 내용을 중심으로 寒厥과 熱厥의 病機를 살펴보고, 아울러 논쟁이 되고 있는 四肢厥冷의 有無와 昏倒(人事不省)의 有無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病機

1) 寒厥

『素問·厥論』에서는 寒厥의 증상에 대해 다섯 발가락에서부터 무릎까지 차가워지는 것으로 설명하였고, 그 병인에 대해서는 체질이 건장한 자가 가을과 겨울에 色慾 등에 의해 腎精을 妄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素問·厥論』에 나타나 있는 寒厥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帝曰, 寒厥之爲寒也, 必從五指而上於膝者, 何也? 岐伯曰, 陰氣起於五指之裏, 集於膝下, 而聚於膝上, 故陰氣勝, 則從五指至膝上寒, 其寒也, 不從外, 皆從內也. 帝曰, 寒厥何失而然也? 岐伯曰, 前陰者, 宗筋之所聚, 太陰陽明之所合也. 春夏則陽氣多而陰氣少, 秋冬則陰氣盛而陽氣衰, 此人者質壯, 而秋冬奪於所用, 下氣上爭, 不能復, 精氣溢下, 邪氣因從之而上也. 氣因於中, 陽氣衰, 不能滲營其經絡, 陽氣日損, 陰氣獨在, 故手足爲之寒也.(黃帝가 말하였다. “寒厥證에 차가워지는 증상이 반드시 다섯 발가락을 따라 무릎으로 올라가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岐伯이 대답하였다. “陰氣는 다섯 발가락 안에서 일어나 무릎 아래로 모였다가 무릎 위로 모이게 되는데, 陰氣가 勝하게 된 즉 다

섯 발가락을 따라 무릎 위에 이르기까지 차가워지는데, 병이 밖에서부터 쫓아오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부터 쫓아오는 것입니다.” 黃帝가 말하였다. “寒厥證은 무엇을 잘못하여 그러한 것입니까?” 岐伯이 대답하였다. “前陰은 宗筋이 모이는 곳으로 太陰과 陽明이 합하는 바입니다. 봄과 여름에는 陽氣가 많고 陰氣는 적으며, 가을과 겨울은 陰氣가 盛하고 陽氣는 衰하는데, 이 寒厥證에 걸린 사람은 체질이 건장하였는데 가을과 겨울에 精을 소모함으로 인해 빼앗기게 되어 아래에 있는 陰氣가 위로 올라가 陽氣와 다투어 陽氣가 회복되지 못하게 되는데, 精氣가 아래로 세어나감에 邪氣가 그 虛한 틈을 타서 올라오게 됩니다. 邪氣가 안이 虛한 틈을 타서 侵襲을 함에 陽氣가 衰하여져 經絡을 영양하지 못하여, 陽氣가 날로 虧損되고 陰氣만 홀로 있게 되므로 手足이 차가워지는 것입니다.”²⁾

上記한 문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寒厥의 病機는 陰寒이 체내에서 盛하여 陽氣가 體外로 도달되지 않는 것, 즉 陽氣가 虛弱해져 血脈을 溫通하지 못하고, 그 결과 氣血이 四肢를 溫養하지 못하여 寒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³⁾.

이 문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寒厥의 病因이 오로지 內因에 의한 것이냐 하는 것과, 陰虛內熱에 의한 熱厥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黃帝內經研究大成』에서는 본 문장의 寒厥의 病因을 다만 가을·겨울에 養生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 腎中의 陽氣를 훼손시켜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하여 內因으로만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본문에 “其寒也, 不從外, 皆從內也”라고 표현된 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張介賓·張志聰·胡天雄·丹波元簡 등이 이러한 견해를 타나내고 있다. 그러나 寒厥의 病因을 內因으로만 인식할 경우 본문의 “邪氣因從之而上也”의 “邪氣”에 대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에 대해 張介賓은 陽虛하여 나타

2) 前掲書. 169쪽

3)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9. 1641쪽

나는 陰勝의 상태를 邪氣로 인식하고, 그 邪氣를 寒氣로 설명하고 있다⁴⁾. 張志聰⁵⁾·胡天雄⁶⁾·丹波元簡은 張介賓과 같은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丹波元簡은 “邪氣”를 “陰氣”로 표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⁷⁾.

이에 비해 楊上善⁸⁾과 馬蒔⁹⁾는 “邪氣”의 의미에 대해 외부의 寒邪로 인식하고 있다. 즉, 寒厥을 인체내의 陽氣가 虧損된 상태에서 寒邪가 侵襲하여 발생하는 內傷과 外感이 兼한 病證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¹⁰⁾.

이상의 寒厥의 원인을 內因으로 주장하는 견해와 內傷과 外感이 兼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는

- 4) 張介賓. 『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0. 482쪽
“精溢則氣去, 氣去則陽虛, 陽虛則陰勝爲邪, 故寒氣因而上逆矣.”
- 5) 張志聰 著.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2. 393쪽
“邪氣者, 謂陰勝水寒之邪. 夫陽氣藏于陰藏, 精陽外出, 則陰寒之邪因從之而上矣.”
- 6) 胡天雄. 『素問補識』.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1. 303쪽
“寒厥之氣因于中, 爲陽衰寒盛, 熱厥之熱盛于中, 爲陰虛熱乘.”
- 7) 丹波元簡. 『素問識』.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254쪽
“簡按吳云邪氣, 陽氣也. 以其所實, 目之爲邪. 此解太誤. 若改陽字作陰, 則才通.”
- 8) 楊上善 撰注. 蕭延平北承甫 校正. 王洪圖, 李云 增補點校. 『黃帝內經太素』.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0. 785쪽
“因奪所用, 則陽氣上虛, 陰氣上爭, 未能和復, 精氣溢泄益虛, 寒邪之氣因虛上乘, 以居其中, 以寒居中, 陽氣衰虛. 夫陽氣者, 衛氣也. 衛氣行于脈外, 滲灌經絡以營于身, 以寒邪居上, 衛氣日損, 陰氣獨用, 故手足冷, 名曰寒厥也.”
- 9)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293쪽
“此寒厥之人, 必恃其質壯, 而秋冬多欲, 以奪于腎經之用事, 是在下之腎氣, 乃因強力而遂與上焦之氣相爭, 不能復如其舊, 其精氣爲之溢下, 故寒邪之氣, 因從上爭之氣而齊上也. 蓋由腎氣既困于中, 秋冬三陽本衰, 而至此益衰, 不能滲營其經絡, 故陽氣日損, 陰氣獨在, 今寒邪入之, 則手足皆爲之寒者宜也.”
- 10) 한편, 『黃帝內經研究大成』에서는 寒厥의 원인에 대해 오로지 外感에 의한 것, 즉 寒邪에 의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傷寒論』의 四逆湯證에 나타나는 四肢厥冷과 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9. 1641쪽

자는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그 근거로 다음의 2가지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문에 가을과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소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養生을 제대로 못하여 陽氣가 虧損되어 인체의 방어기전이 상실되면 外邪의 侵襲에 대해 무방비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 寒邪가 用事하는 가을과 겨울의 계절에 처하게 되면, 寒邪에 의해 陽氣는 더욱 손상되고 그 결과 寒厥證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본문에서 가을과 겨울의 계절을 명시하였고, 또한 “邪氣”의 용어를 사용한 것은 “寒邪”라는 외부적 요인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陰虛內熱”로 인한 熱厥과 본 문단의 寒厥을 구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 문단에서 제기한 寒厥은 精을 耗損 시킴으로 인해 腎中の 陽氣가 虧損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病因은 陰虛로 인해 內熱이 발생하여 나타나는 熱厥과 비교할 때, “精不足”이라는 공통된 원인을 가지고 있어 뚜렷한 구별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문장의 서두에서 “此人者質壯”이라는 표현을 하여, 寒厥證이 나타나는 사람은 그 체질이 건강하다는 전제 하에 문장을 서술함으로써, 단순한 陰虛와 구분을 하려 한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楊上善과 馬蒔가 주장한 것과 같이 가을과 겨울의 外邪인 寒邪를 病因의 하나로 인식한다면 좀더 분명한 구별을 할 수 있게 된다. 즉, 寒厥과 陰虛內熱로 인한 熱厥은 精을 耗損시켜 精不足이라는 공통된 病因을 가지고 있지만, 寒厥證의 경우 그 사람의 체질이 건강하다는 것과 외부적 요소인 寒邪가 兼해짐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리를 하면, 『素問·厥論』에서 제기한 寒厥은 평소에 체질이 건강한 사람이 가을과 겨울의 찬 기운이 用事하는 계절에 腎精을 耗損시켜 陽氣를 훼손시킨 것이 선행조건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陽氣가 虛한 내부적 조건과 寒邪라는 외부적 조건이相合하게 되고, 그 결과 陽氣의 不足으로 인해 체외로 陽氣가 도달되지 못하여 四肢厥冷을 주된 증상으로 수반하는 寒厥證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素問·厥論』의 寒厥을 陽氣가 虛한 내부적 조건과 寒邪라는 외부적 조건이 相合한 결과 陽氣의 不足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정리할 하였을 때, 이와 같은 病機는 成無已가 주장하는 厥冷의 病機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成無已는 四肢厥冷症을 四逆症과 구분하여, 병이 발생하는 초기부터 四肢厥冷症이 나타나는 것을 厥證으로 이해하면서, 이것은 陰經이 邪氣의 침습을 당하여 陽氣가 부족해져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¹¹⁾. 즉, 太陽經을 침습한 寒邪가 傳變과정을 거치면서 熱邪로 化하여 발생하는 四逆症과는 달리, 厥冷症은 寒邪가 厥陰經을 直中하여 陽氣가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附子和 乾薑 등 溫經하는 약재를 주로 이용하여 陽氣를 도와 주면서 寒邪를 몰아내는 치법을 적용하고 있다.

成無已가 주장하는 厥冷症과 『素問·厥論』의 寒厥의 四肢厥冷症은 陽氣부족에 의해 陽氣가 전신으로 퍼지지 못하여 발생하는 공통된 병기를 가지고 있다. 다만, 『素問·厥論』에서는 陽氣부족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內因에 주된 초점을 맞추어 인식하고 있고, 成無已는 寒邪의 침습이라는 外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2) 熱厥

① 陰虛內熱로 인한 熱厥

『素問·厥論』에서는 熱厥의 증상에 대해 手足을 포함해 전신에 熱이 나고, 內熱로 인해 소변 색이 붉게 되는 것으로 기술하였고, 病因에 대해서는 酒色 등으로 인한 精의 耗損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帝曰, 熱厥何如而然也? 岐伯曰, 酒入於胃, 則絡

脈滿而經脈虛, 脾主爲胃行其津液者也, 陰氣虛則陽氣入, 陽氣入則胃不和, 胃不和則精氣竭, 精氣竭則不營其四肢也. 此人必數醉, 若飽以入房, 氣聚於脾中, 不得散, 酒氣與穀氣相薄, 熱盛於中, 故熱遍於身, 內熱而溺赤也. 夫酒氣盛而慄悍, 腎氣有衰, 陽氣獨勝, 苦手足爲之熱也.(黃帝가 말하였다. “熱厥은 어찌하여 생기는 것입니까?” 岐伯이 대답하였다. “술이 胃로 들어가면 絡脈이 가득 차고 經脈은 虛해지는데, 脾는 胃를 위하여 津液을 운행하는 장기로 脾의 陰氣가 虛해지면 陽氣가 들어가게 되고, 陽氣가 들어가면 胃가 不和하게 되고, 胃가 不和하면 精氣가 고갈되며, 精氣가 고갈되면 四肢를 영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자주 술을 마셔 취하는데, 만약 배불리 먹은 상태에서 성생활을 하여 氣가 脾에 모여 흩어지지 않게 되면, 酒氣와 穀氣가 相薄하여 熱이 체내에서 盛하게 되므로 온몸에 熱이 나게 되고, 內熱로 인해 소변이 붉게 됩니다. 무릇 술은 양기가 盛하고 그 성질이 사납고 날래기 때문에 腎氣를 손상시키므로 腎氣는 衰하게 되고 陽氣는 홀로 勝하게 되므로 手足에 熱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¹²⁾

上記한 문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熱厥은 과도한 음주와 성생활로 인한 脾·腎의 陰不足이 원인이 되어, 四肢를 포함한 전신에 熱이 나고 소변이 붉게 나오는 증상을 동반하는 병증이다. 본편의 熱厥에 대해 대부분의 醫家들은 陰虛로 인해 虛熱이 內生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王冰은 과도한 음주와 식사, 그리고 성생활로 精氣를 없애버린 결과 인체 내부가 陽盛陰虛한 상태가 되어 手足에서 熱이 발생한다고 인식하였다¹³⁾. 이에 대해 馬蒔는 胃에서 술과 穀氣를 받아들여 “熱盛于中”한 상태가 되어 전신에 熱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한편, 手足熱에 대해서는 熱盛한 성질

11) 成無已. 『仲景全書·傷寒明理論』. 서울. 大星文化社. 1989. 596쪽
“若始得之, 手足便厥而不溫者, 是陰經受邪, 陽氣不足, 可用四逆湯溫之.”

12)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169쪽

13)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582쪽
“醉飽入房, 內亡精氣, 中虛熱入, 由是腎衰, 陽盛陰虛, 故熱生於手足也.”

을 가지고 있는 술이 腎陰을 衰하게 하므로, 腎氣는 虛하고 胃陽은 獨勝하여 手足에 熱이 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¹⁴⁾. 즉, 馬蒔는 王冰과 마찬가지로 熱厥의 원인을 陽盛陰虛한 상태로 보고 있지만, 陽盛에 대해서는 胃熱로 보고 있다. 張介賓¹⁵⁾과 張志聰¹⁶⁾은 대체로 馬蒔의 견해를 따르고 있는데, 다만 張介賓은 腎陰虛의 상태가 되는 이유를 성생활 때문임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素問·厥論』의 熱厥에 대해 대부분의 注家들이 陰虛를 중요한 원인으로 제기하고 있다. 다만, 手足熱의 증상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陰虛內熱과 胃熱이라는 상이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黃帝內經研究大成』에서는本篇의 熱厥에 대해 陰虛陽盛의 熱厥로 인식하면서 六味地黃丸·左歸飲·大補陰丸·知柏地黃丸 등의 滋陰之劑 위주의 처방을 제시하고 있으니¹⁷⁾, 이는本篇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하겠다.

② 陽盛格陰의 熱厥

『黃帝內經研究大成』에서는 陰虛生內熱로 인해 발생하는 熱厥 외에 또다시 陽盛格陰으로 인한 熱厥을 제시하고 있다. 그 病機에 대해서는 體內의 盛한 熱이 발산되지 못하고 체내에 鬱滯되면

寒이 체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表에 머무르게 되어 결과적으로 高熱이 나면서 상대적으로 手足이 冷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陰虛로 인한 虛熱이 아닌 實熱로 인식하면서, 치법으로는 清泄內熱할 것을 주장하면서 白虎湯을 제시하고 있다¹⁸⁾. 이 내용에 근거하여 『傷寒論』에 나타난 厥證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傷寒論』에서는 裏熱로 인해 脈이 滑하면서 厥冷이 나타나는 경우에 白虎湯을 사용한다고 기술되어 있다¹⁹⁾. 『傷寒論』에서는 厥을 手足厥冷으로 인식하면서, 厥冷이 발생하는 이유를 陰陽의 氣가 서로 順接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²⁰⁾. 이러한 인식 아래 내부의 熱이 深하면 厥冷이 深해지고, 熱이 微弱하면 厥冷의 증상도 微弱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²¹⁾. 즉, 太陽經에서 感受한 寒邪가 시일이 지나면서 熱邪로 轉化되고, 轉化된 熱邪는 체내에 잠복하여 陽氣가 외부로 도달되지 못하면서 高열의 증상과 아울러 手足厥冷이 나타나는 것이니, 發熱증상이 먼저 나타난 뒤 厥冷증상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게 된다.

이상에서 기술한 陰虛生內熱에 의한 熱厥과 陽盛格陰에 의한 熱厥을 비교해보면, 그 병인에 있어서 內因과 外因이라는 구별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陰虛生內熱에 의한 熱厥은 飲酒와 성생활로 陰을 耗損시켜 陰不足으로 인해 內熱이 발생하고, 아울러 飲酒와 飽食이 兼해져 胃에 濕熱이 쌓여 발생한 것으로 手足을 포함한 전신에 熱이 나면서 소변이 붉게 나오는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니, 주된 병인은 內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陽盛格陰에 의한 熱厥은 외부의 寒邪에 침습을 받은 상태에서, 시일이 지나면서 太陽經

14)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293~294쪽

“此熱厥之人，每爲醉飽以入房，下氣上爭，聚于脾中，脾胃既受穀氣，又受酒氣，熱盛于中，故熱遍全身，自內形外也，其內熱以溺赤爲驗。夫酒氣本盛而慄悍，惟腎陰既衰，胃陽獨勝，手足皆爲之熱者宜也。”

15) 張介賓. 『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0. 483쪽

“數醉若飽入房者，既傷其脾，復傷其腎，皆陰虛也，故手足爲熱。”

16) 張志聰 著.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2. 394~395쪽

“夫飲酒數醉，則悍熱之氣反從外而入，而酒氣聚于脾中矣。若飽以入房，則穀食留于胃中，脾藏不能轉輸其精液，而穀氣聚于脾中矣。氣聚于中而不得散，酒氣與穀氣交相侵搏，則熱盛于中矣。中土之熱灌于四旁，故熱遍于身也。入胃之飲食，不能遊溢精氣，下輸膀胱，故內熱而溺赤也。夫腎爲水藏，受水穀之精而藏之，酒氣熱盛而慄悍，能藏之精氣日衰，陰氣衰于下，而陽氣獨勝于中，故手足爲之熱也。”

17)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9. 1642쪽

18) 前掲書. 1642쪽

19) 張仲景. 『仲景全書·傷寒論』. 서울. 大星文化社. 1989. 286쪽

“傷寒脈滑而厥者，裏有熱也，白虎湯主之。”

20) 前掲書. 282쪽

“凡厥者，陰陽氣不相順接，便爲厥，厥者手足厥冷，是也。”

21) 前掲書. 281쪽

“傷寒一二日，至四五日而厥者，必發熱，前熱者，後必厥，厥深者，熱亦深，厥微者，熱亦微，厥應下之，而反發熱者，必口傷爛赤。”

에서 감수한 寒邪가 轉變을 하는 과정에 熱로 化하여 裏熱證을 형성하여 발생하는 것이니, 주된 병인은 外因이라고 할 수 있다. 治法에 있어서도 두 熱厥證은 차이가 있으니, 陰虛生內熱에 의한 熱厥은 주로 陰을 길러주면서 虛熱을 꺼주는 처방을 쓰면서 아울러 胃의 濕熱을 제거하는 처방이 적당하다. 이에 비해 陽盛格陰에 의한 熱厥은 下法을 위주로 한 처방을 적용할 수 있으니 白虎湯이나 承氣湯類의 처방이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²²⁾.

2. 四肢厥冷의 有無

厥證 가운데 寒厥·陽盛格陰의 熱厥·暴厥·尸厥의 경우는 四肢厥冷의 증상을 동반하고 있고, 陰虛生內熱의 熱厥은 四肢厥冷의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에 먼저 四肢厥冷症을 동반하는 厥證을 중심으로 四肢厥冷症이 나타나게 되는 病機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陽氣不足에 의해 四肢厥冷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이니 寒厥이 이에 속한다. 즉, 陽氣가 부족하여 血脈을 溫通시키지 못하고, 그 결과 氣血이 四肢를 溫養하지 못하여 四肢厥冷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니, 陰盛陽虛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陽氣가 鬱滯되어 나타나는 경우이니 陽盛格陰에 의한 熱厥과 暴厥이 이에 속한다. 먼저 陽盛格陰에 의한 熱厥의 경우를 살펴보면, 外感寒邪가 傳經하는 과정에서 轉化된 熱邪가 체내에 잠복하여, 그 결과 陽氣가 체외로 도달되지 못하여 四肢厥冷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 暴厥의 경우에 있어 林珮琴은 氣가 閉塞됨으로 인해 四肢가 厥冷하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²³⁾.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素問·通評虛實論』의 暴厥에 대한 설명에서 찾을 수 있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凡治消痺仆擊, 偏枯痿厥, 氣滿發逆, 肥貴人, 則高粱之疾也. 隔塞閉絕, 上下不通, 則暴憂之病也. 暴厥而鬱, 偏塞閉不通, 內氣暴薄也.(일반적으로 消痺, 仆擊, 偏枯, 痿厥, 氣가 가득하여 逆을 발하는 병 등을 치료하는 데에, 만약 살찌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면 기름진 음식을 먹어 생긴 질병입니다. 氣의 흐름이 막혀 음양 상호간의 교통이 閉絶되어 상하로 통하지 않는 병은 갑자기 근심하여 생긴 병입니다. 갑작스럽게 쓰러져 귀가 먹는 병, 閉塞되어 대소변이 통하지 않는 병 등은 몸 안의 氣가 갑자기 압박한 것입니다.)”²⁴⁾ 이 문장에 대해 張介賓²⁵⁾을 제외한 대부분의 醫家들은 暴氣가 上逆하는 것에 대해서만 설명하였고 四肢厥冷에 대한 언급은 없다. 즉, 暴厥에 대해서 주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人事不省의 상태가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기름진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체내에 濕熱이 쌓여 鬱滯되어 氣血의 운행이 원활해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그 결과 熱이 발산되지 못하고 잠복되어 체내에 熱이 盛하게 되고 氣血은 체표로 운행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므로, 四肢厥冷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尸厥의 경우이다. 尸厥은 中惡을 의미하는 것으로²⁶⁾,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四肢가 싸늘해지는 질환이다. 尸厥은 不正한 邪氣에 감촉 되어 氣의 운행이 갑자기 閉塞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다른 厥證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편, 『素問·厥論』의 熱厥은 手足이 熱한 것으로 기술되어, 四肢厥冷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黃帝內經研究大成』에서는 이를 陰虛陽盛의 熱厥로 규정을 하면서 陽이

22) 李培生 主編. 『傷寒論』. 서울. 아울로스출판사. 1994. 521쪽

23) 林珮琴. 『類證治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293쪽 “暴厥脈至如喘, 氣閉肢冷, 若鼻及心腹微溫, 目中神采不變, 口無涎, 卵不縮, 皆可救.”

24)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109쪽

25) 張介賓. 『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0. 586쪽 “厥, 四肢厥逆也. …… 暴厥, 氣暴逆也. 此以內氣之逆, 暴有所薄而然.”

26) 林珮琴. 『類證治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293쪽 “尸厥卽中惡之候, 因犯不正之氣, 忽手足厥冷, 牙緊口噤, 昏不知人.”

鬱滯되어 四肢厥冷의 증상이 나타나는 厥證과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²⁷⁾. 胡天雄도 病機와 症狀의 측면에 있어 本篇의 厥證은 熱邪가 內伏하여 四肢厥冷을 동반하는 證과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⁸⁾. 그러나 馬蒔·張介賓·張志聰 등이 手足熱의 증상을 胃熱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바, 이는 기름진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한 결과 체내에 濕熱이 鬱滯되어 발생하는 暴厥과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없다. 즉, 술과 과식으로 胃에 熱이 쌓여 手足熱이 생기지만,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中焦에 가서는 濕熱이 鬱滯되고, 그 결과 氣血의 운행이 원활해지지 못하여 手足厥冷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3. 昏倒(人事不省)의 여부

厥證은 昏倒하여 人事不省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厥을 “氣上逆”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 이해하는 것이다. 氣上逆이란 火熱의 熾盛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 여러 원인으로 체내에 火熱이 熾盛함으로 인해 氣가 上逆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외에도 氣血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氣가 閉塞되는 것이 원인이 되어 人事不省의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구분하여 설명해 보고자 한다.

1) 氣閉塞으로 인한 昏倒

尸厥과 寒厥, 그리고 薄厥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니, 尸厥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中惡을 의미하는 것으로, 不正한 邪氣에 침습되어 氣가 閉塞됨으로 인해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것이다. 한편, 寒厥의 경우 대부분의 醫

家들은 熱厥과 구분하면서 昏倒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寒厥의 경우에도 증세가 심해지면 人事不省하는 昏倒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²⁹⁾. 이러한 주장은 氣閉塞으로 인해 昏倒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제기한 것이다. 즉, 陽氣가 虛하고 陰이 盛해지면 인체는 虛寒한 상태로 빠지게 되는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寒은 收引·凝滯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체내에 陰寒이 盛해지고 상대적으로 陽이 虛해지면, 陽氣의 활동성이 저하됨으로 인해 氣閉塞의 상태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昏倒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薄厥은 갑자기 화를 내어 氣血이 모두 上逆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上逆한 氣血이 상부에서 阻滯不通되어 昏倒의 증상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氣血이 筋을 영양하지 못하여 四肢가 이완되는 증상을 겸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 火熱熾盛에 의한 昏倒

『素問·厥論』에서는 熱厥의 경우 갑자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을 제기하면서 그 이유를 陽氣가 상부로 쏠려 있는 상태에서 下氣가 거둬 올라가 陽氣가 혼란해져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³⁰⁾. 이에 대해 馬蒔는 陽氣와 陰氣를 각각 足陽明胃氣와 足少陰腎氣로 인식하고 있다³¹⁾. 즉, 馬蒔는 熱厥을 腎陰이 부족하고 胃熱이 獨勝한 상태에서 手足熱을 주 증상으로 하는 病症으로 인식하면서, 熱厥의 상태가 더 심해져 熱이 陰液을 끓여오르게 하는 상태가 되면 陰이 陽을 억제하지 못하여 昏倒

27)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9. 1642쪽

28) 胡天雄 著. 『素問補識』.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1. 301쪽

“此與後世熱厥大異. 其特點爲, 在病因上, 生活失于調攝, 房勞傷陰而又嗜酒助熱. 在病機上, 陽熱盛于中焦而胃氣不和, 陰氣虛于下焦而腎氣日衰. 在症狀上, 熱從足下始而漸及于手足皆熱, 伴有胸膈煩悶. …… 若後世之熱厥, 則以症狀爲手足厥冷, 病機爲熱邪內伏, 與此大不相同.”

29) 全國韓醫科大學原典學教室 編. 『類編黃帝內經』. 대전. 주민출판사. 2005. 335쪽

30)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169쪽

“陽氣盛於上, 則下氣重上, 而邪氣逆, 逆則陽氣亂, 陽氣亂, 則不知人也.”

31)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294쪽

“陽氣者, 由上文觀之, 則是足陽明也. 足陽明酒氣盛于上, 足少陰腎氣又上, 彼邪氣從之而上, 則邪氣與陽氣爲逆, 逆則陽氣亂, 陽氣亂則昏暈而不知人也.”

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病機는 煎厥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즉, 『素問·生氣通天論』에서는 煎厥을 陽이 亢盛하여 精絶한 상태에서 火가 盛한 여름의 時令을 만나게 되면 昏倒의 증상이 발생한다고 하였는데³²⁾, 이 경우도 亢盛한 陽이 陰精을 煎熬하여 虛해진 陰이 陽을 억제할 수 없어 昏倒의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다³³⁾.

한편, 暴厥과 陽盛格陰의 熱厥에 나타나는 昏倒의 病機도 위의 경우와 의미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陰不足 보다는 火熱의 熾盛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III. 結 論

厥證에 대한 考察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寒厥은 陽氣가 不足하여 血脈을 溫通하지 못하고, 그 결과 氣血이 四肢를 溫養하지 못하여 발생한다. 『素問·厥論』에서는 陽氣가 부족해지는 이유를 腎精을 耗損시켜 陽氣를 훼손시킨 상태에서 寒邪의 침습을 받는 것이 兼해져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 『傷寒論』에서는 寒邪가 厥陰經에 直中하여 발생한다고 하였다.

둘째, 『素問·厥論』에서 제기한 陰虛內熱로 인한 熱厥은 과도한 음주와 식사, 그리고 성생활로 精을 훼손시켜 陽盛陰虛한 상태가 되어 발생한다. 특히, 手足이 熱한 것이 특징인데, 이는 飲酒와 過食으로 胃에 熱이 쌓인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陽盛格陰의 熱厥은 체내에 鬱滯·潛伏되어 있는 熱이 발산되지 못하여 발생하는데, 高熱이 나면서 鬱滯된 熱로 인해 體表에 氣血의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手足厥冷의 증상이 동반되어 나타난다. 『傷寒論』에서는 이 경우 白虎湯으로 치료를 하였다.

넷째, 厥證에서 四肢厥冷이 나타나는 경우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陽氣不足에 의해 나타날 수 있으니 寒厥이 이에 속한다. 둘째, 陽氣가 鬱滯되어 나타날 수 있으니, 陽盛格陰에 의한 熱厥과 暴厥이 이에 속한다. 셋째, 尸厥인데 尸厥은 不正之氣에 감촉되어 갑자기 인체의 氣血이 閉塞되어 발생한다.

다섯째, 『素問·厥論』의 熱厥은 手足이 熱하지만, 술과 水穀이 체내에 쌓여 濕熱이 발생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膏粱之味로 인해 발생하는 暴厥과 의미가 비슷하므로, 중국에 가서는 手足厥冷症이 나타날 수 있다.

여섯째, 厥證에서 昏倒의 발생은 2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氣閉塞에 의해 昏倒가 발생할 수 있으니, 尸厥·薄厥·寒厥이 이에 속한다. 특히, 寒厥은 대부분의 醫家들이 昏倒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寒의 성질이 收引·凝滯하는 특성이 있는 것을 유추해 볼 때 氣閉塞으로 인한 昏倒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둘째, 火熱이 熾盛하여 陽氣가 上部로 쏠려 昏倒가 발생할 수 있으니, 熱厥·煎厥·暴厥이 이에 속한다.

IV. 參考文獻

1.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2. 丹波元簡. 『素問識』.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3.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4. 成無已. 『仲景全書·傷寒明理論』. 서울. 大星文化社.

32)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16쪽

“陽氣者, 煩勞則張, 精絶, 辟積於夏, 使人煎厥, 目盲不可以視, 耳閉不可以聽, 潰潰乎若壞都, 汨汨乎不可止.”

33)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9. 1642쪽

- 1989.
5. 楊上善 撰注. 蕭延平北承甫 校正. 王洪圖, 李云 增補點校. 『黃帝內經太素』.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0.
 6.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9.
 7. 李培生 主編. 『傷寒論』. 서울. 아울로스출판사. 1994.
 8. 林珮琴. 『類證治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9. 張介賓. 『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0.
 10. 張仲景. 『仲景全書·傷寒論』. 서울. 大星文化社. 1989.
 11. 張志聰 著.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2.
 12. 全局韓醫科大學原典學教室 編. 『類編黃帝內經』. 대전. 주민출판사. 2005.
 13. 胡天雄. 『素問補識』.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1.
 14.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